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Rig market set for 'restructuring wave' as Covid-19 crisis cripples cash flow

시추업체가 COVID-19가 야기한 위기로 인해 구조조정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도됨. 아직까지는 미국의 Diamond Offshore만이 파산보호 신청(Chapter11)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금흐름이 마른 다른 시추업체들(Seadrill, Valaris, Pacific Drilling, Noble)도 곧 비슷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됨. (Upstream)

## Mozambique eyes approval for sixth licensing round

Mozambique가 오랫동안 지연된 6번째 licensing round를 올해 안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당초 지난해 진행하기로 했던 licensing round는 COVID-19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연기되었지만 올해 안으로 정부의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됨. (Upstream)

## 미국 LNG 가격 금년 말에 회복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에 따르면,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오는 9월 평균 MMBtu 당 2.06달러를 기록한 후 내년 1월에는 3.08달러로 오를 전망이라고 보도됨. 5월 중 Henry Hub LNG 스팟 가격은 평균 MMBtu 당 1.75달러였으나 가을과 겨울에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 석유 시장 균형 조기 회복 전망

석유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균형을 찾을 전망이라고 보도됨. 최근 산유량이 줄어들고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보도됨. 우려했던 지난 5월 석유 공급 과잉 사태가 예상과는 달리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석유 소비 지수도 미국과 OECD 국가들의 봉쇄조치 완화에 따라 4월의 저점에서 상승 기조로 돌아섰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Sembcorp Marine, Sembcorp Industries서 분리

싱가포르 Sembcorp Marine이 Sembcorp Industries에서 분리된다고 보도됨. 양사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석유 및 가스 산업 사이클 하락세를 감안할 때 양사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함. (선박뉴스)

## 현대일렉트릭 372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현대일렉트릭은 자회사인 알라바마법인이 Liberty Mutual Insurance Company으로부터 빌린 372억원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함. 채무보증 금액은 자기자본(7,002억원) 대비 5.3% 수준이며, 보증 기간은 2021년 6월 15일까지라고 보도됨. (국민일보)